



미 증시, 민간 고용 호조에도 차익실현 압력으로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30 일(수) 미국 3 대 증시는 6 월 민간 고용 지표 호조,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도, 2 분기 실적 시즌 관망심리, 델터 변이 확산 우려, 기술주 차익실현 물량 등이 장 중 상승세를 제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(다우 +0.6%, S&P500 +0.2%, 나스닥 -0.2%). 업종별로는 에너지(+1.3%), 산업재(+0.8%), 필수소비재(+0.7%) 등이 강세, 부동산(-0.8%), 커뮤니케이션(-0.2%), 유틸리티(-0.2%) 등이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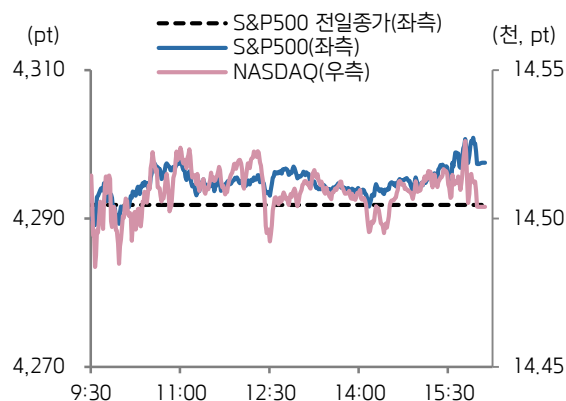
6 월 ADP 민간부문 신규고용은 69.2 만건으로 전월(88.6 만건)에 비해 둔화됐으나, 예상치(60.0 만건)를 상회. 레저 및 접대(33.2 만건) 등 서비스업(62.4 만건)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. 유로존의 6 월 소비자물가 예비치는 1.9%(YoY)로 전월(2.0%)에 비해 소폭 둔화됐으며, 예상치(1.9%)에 부합하는 등 9 개월만에 유로존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.

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3.5%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말보다 좀 더 이른 시점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. 다만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진 만큼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.

미국 증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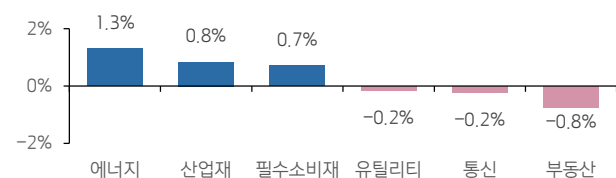
6 월 ADP 민간 고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지만,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상황. 5 월 수치에 비해 약 20 만건 가까이 둔화됐으며, ADP 고용 호조가 비농업부문 호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. 지난 6 월 초 5 월 ADP 고용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, 이를 뒤 발표된 비농업부문 고용은 쇼크를 기록했던 경험이 존재. 따라서, 금주 남은 기간 동에는 2 일(금) 발표 예정인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. 또한 2 분기 실적시즌을 둘러싼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음을 감안 시 업종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효.

S&P500 일중 차트(6월 3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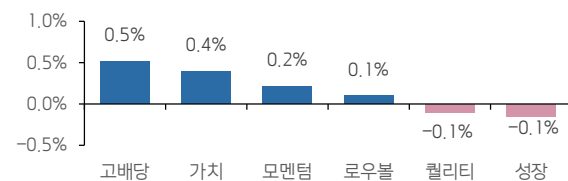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6월 3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6월 3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1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65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1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130.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유보에 따른 여행, 레저 등 서비스업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2.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, 원/달러 환율 상승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둔화 가능성 3. 6 월 수출지표 결과를 통한 국내 수출 대형주들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

한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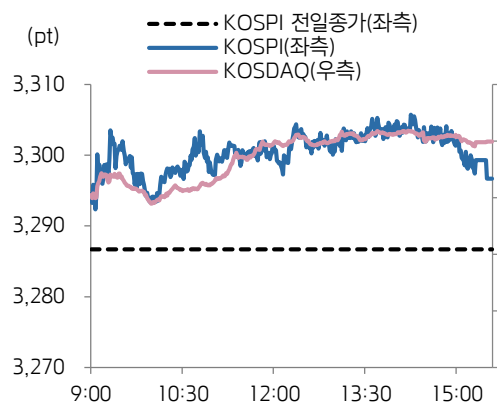
30 일(수) 코스피는 미국의 소비심리지표 호조를 통해 확인된 선진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, 중국 경제지표 호조,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 속 성장주 및 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. 국내 변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 강화 우려,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 등이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(코스피 +0.3%, 코스닥 +0.7%).

업종별로는 서비스(+1.2%), 종이목재(+1.1%), 화학(+0.6%) 등이 강세, 통신(-0.6%), 기계(-0.4%), 유통(-0.3%) 등이 약세.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7 억원, 525 억원 순매도, 개인이 320 억원 순매수를 기록.

한국 증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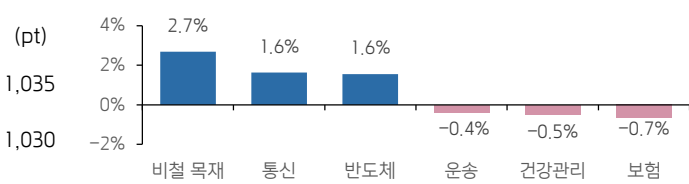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금일에도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델타 변이 대유행 우려, 미국 ISM 제조업 지수(1 일), 비농업부문 고용(2 일) 등 미국의 대형 경제 지표를 둘러싼 관망심리가 상존할 전망. 이와 더불어, 미국 기술주 약세에 영향을 받아 최근 단기 상승세를 보였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. 다만, 전거래일 미국 장 마감 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(+2.4%, 시간외 -1.9%)가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 업종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것으로 판단. 장전 발표되는 6 월 수출 지표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므로, 금일 증시는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(6월 30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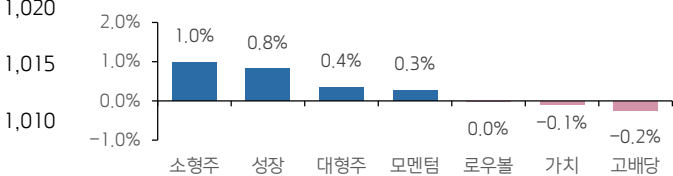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6월 3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6월 3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